

# 옹달샘에서 떠낸 한 조롱박의 생수

안병무

(한신대 명예교수)

잡초는 밟으면 밟을수록 뿌리를 깊게 하고 그 폭을 넓게 한다. 드센 바람이 휘몰아 치면 적의 집중사격에 일제히 엎드렸다가 도로 일어나 돌격의 자세를 취하는 사병들처럼 포복했다가 다시 일어선다. 생수는 지하의 심층에서 보이지 않게 줄곧 흐르고 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원천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는 듯 땅속 깊이 숨어서 마르는 일 없이 계속 흐르고 있다. 그 생수가 오염되는 날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죽는 날이다. 역사의 담지자는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온갖 기물을 다 동원해서 체포하듯 포착해서 보면 그게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은 없는 것이거나 있어도 힘없는 것이라고 부정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역사는 여전히 그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다. 민중이 바로 그 이름이다. 그러나 페르존(Person)이라는 것이 가면이라는 말이듯이 그 이름 역시 생명의 담지자의 얼굴을 가리운 가면이다. 그래서 민중신학은 민중을 개념화하지 않는다. 그것은 살아 있는 실체를 개념으로 박제화할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것은 동시에 민중신학은 출발부터 한계를 안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민중을 아는 길은 민중과 더불어 사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민중교회 운동에 나선 친구들은 민중자신이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민중과 더불어 살므로 그들의 기(氣)를 받는 사람들이기에 민중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저들의 기에 의존하여 민중의 소리를 듣는 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저들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 밖에서, 또는 일부 감시자에게 들켜 박해를 받으면서 계속 짓밟혀 왔다. 그러나 저들은 죽지 않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뿌리를 확산해 왔다.

극도로 오염된 대지와 강물이 세상을 위기로 몰아치는 동안 저들은 여전히 지하에 숨어 그 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제 더럽혀지지 않은 이 생수를 웅달샘에서 한 조롱박 떠서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보라고 내놓게 됐다. 그것이 바로 이 한 묶음의 '자료집'의 형태로 된 책 『바닥에서 일하시는 성령』이 되어 세상에 선을 보이게 된 것이다. 나는 이것에 대한 축하의 마음 못지 않게 불안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이미 순수한 물의 맛은 모르고 온갖 잡물들을 섞어 여러 가지 맛을 낸 것만 마시는 버릇에 젖은 사람들의 입에 이 생수가 오히려 맛없는 낯선 것이 되어 거부당하는 경우를 상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소함을 이겨내고 이 물을 한모금 마시는 사람은 행복할진저!

나는 이 조롱박에 떠내온 한 모금의 샘물을 받아 마심으로 갈한 목을 축이리라.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서 또 하나의 웅달샘을 이루어 떠내도 떠내도 마를 줄 모르는 또 하나의 웅달샘이 되기를 기원하리라.

□